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나도 장애인이다



Interview

독립적 경제주체의 하나로 장애인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대



IDI 소식



중구와 구정현안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13일,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객...

Zoom 人



생동감 있고, 다양성을 배려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96년 5월에 입사해 올해로 근속년수 16년차에 빛나는 개원 멤버, 윤...

Zoom INcheon



강화대교로1_감실진과 손들목
강화도는 이제는 섬이 아니다. 강화대교에 이어 초지대교가 놓임으로서 김...

도시동향



지적·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전, 스포츠 올림픽 첫 개최지, 미국 시카고
미국 일리노이 주 북동부에 위치한 미국 제2의 도시인 시카고 (Chica...

IDI 연구



효율적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 연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 중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중앙정...

인천지표



지표로 보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11년 실시하는 “장애인 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나도 장애인이다



조 용 식 · 인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느님도 장애인인가? 라고 쓴 글이 기억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 중에도 아주 정성스럽고 고귀하게 선택된 값진 선물이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어떤 여성이 어릴 적부터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며 생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 외에도 나눔과 봉사활동도 충실히 해온 터라 주위에서 성녀로 취급할 정도로 신앙심이 돈독했지요. 그런데 그 여성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니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 슬픔과 고통의 눈물 속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녀는 하느님 섬기는 일을 중단할 뿐 아니라 원망까지도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말입니다.” 라고 하소연하자, 다음날 하느님께서 나타나서 “애야, 본디 네가 출산한 아이는 원래가 내 자식이었다. 사람을 통해 내 자식을 키워줄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모두들 문을 걸어 닫고 외면하더라, 그런데 너만큼은 문을 열어주었고 내 자식을 받아줄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너의 몸을 통해 내 자식을 대신 키워달라고 보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여성은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장애인 아들을 정성껏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언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고, 태풍이 연타로 불어와서 집집마다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였던 일이 벌써 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높은 가을하늘을 바라보면 어린 시절 창공을 향해 새처럼 날고 싶었던 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약 14만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 내외 수준으로 인구 10,000명당 561명이 선천적·후천적인 사고 또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열등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시절은 지나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2011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70% 이상은 아직도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장애인을 나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위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일까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 부분과 보편적인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장애인가구들이 일반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할 때 월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기준을 볼 때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수입이 1,982만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을 겨우 넘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생활조차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인권이나 장애인식개선이 장애인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라는 우선적인 욕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전체 욕구의 70%를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인권과 장애인식개선 욕구는 합쳐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느끼는 사회적 삶의 불편을 비장애인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인권이나 인식개선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욕구가 소극증대 및 의료보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장애인인 나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입니다.' 라는 말에 심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 장애인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발생요인 중 90% 이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천적 장애발생의 비율을 줄고 후천적 장애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의학의 발전으로 선천적 장애 발생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연령 분포 상으로 장애 발생을 볼 때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언젠라도, 나이가 들수록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간다는 것은 서서히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2012년 복지예산 중 장애인 관련예산 비율이 겨우 1.5%라는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수치라고 봅니다.

동련상련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가장 이해가 빠르며 우군이 되어 준다고 합니다.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저 구두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에 주는 아량깊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품격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나도 장애인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내 안에서 배어나와 성숙의 꽃을 피우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실의 가을이 깊어지는 것처럼 '나도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느님도 장애인인가? 라고 쓴 글이 기억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 중에도 아주 정성스럽고 고귀하게 선택된 값진 선물이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독립적 경제주체의 하나로 장애인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대

독립적 경제주체의 하나로 장애인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대

아프리에 74호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백은석 원장을 만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의 광역지자체마다 1개씩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생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6년에 서울, 제주 등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전시 행사 위주의 일들을 했는데,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식 시설이 되었고, 시설의 성격도 점차 변해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유통하고 판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생산품의 기획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생산품의 구매 조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28조에 나와 있는 우선구매제도가 있었는데, 올해 1월 법의 개정 에 따라 이 조항은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 시설들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반면에, 저희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를 대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곳인 셈입니다.



백은석 원장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Q.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업의 필요성과 실적, 그리고, 생산품 주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의 경우는 24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2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을 처음 맡은 시기가 2004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매출이 6억이었습니다. 법이 정착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결과,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일반적인 생산품 중의 하나가 복사용지인데, 이러한 생산품은 보통 전화 주문을 받는 편이고, 길어도 하루 만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제 매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에게 지원되는 인천광역시의 예산은 4명의 인건비 정도에 해당하는 1억 7,800원입니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대행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액의 10% 이내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5%가 수수료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작년 매출액의 24억원에서 약 8% 정도를 뺀 22억원 정도가 생산시설로 돌아가는데, 생산시설의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의 거래니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 있어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부분은 검증이

근로장애인 수는 대략 1만 2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임금은 월 평균 4,5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일정한 금액을 받고 직장에 갈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생산된 물품의 판매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개편하면서 인건비 지급을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실적으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과 일이라는 큰 틀에서 점점 복지의 가치가 사라지고, 경제적 논리가 점차 지배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Q.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지역적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시장성이 있고, 범용적이면서도 고민할 필요없이 생산이 가능한 복사용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과 다른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생산품 중에 복사용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만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3개소나 됩니다. 저희 판매시설이 판매할 물품을 선별하는 기준은 생산량을 보고 결정합니다. 질은 거의 유사하지만, 생산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합니다. 생산할 물품의 아이টে를 선정할 때 생산하기도 쉽고 판매가 잘 되는 아이টে이 좋긴 하겠지요. 다른 대표적인 생산품은 복사용지 외에 화장지, 토너, 필기구와 같은 사무용품 등입니다. 또한, 인천시 전체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곳은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매년 1억대 이상을 구매하고, 가장 협조적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많이 구매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구매규모가 적은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수한 생산품을 만드는 시설을 예로 들자면 규모나 역사로 봤을 때 칫솔을 생산하는 '한인한'을, 단체로는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서구 소재 '근로장애인진흥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Q.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사고 싶은 물건다운 물건이 만들어져야겠지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0년에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공공시설과 기관의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의 질에서 49%, 가격에서 19% 등 전체적으로 약 70% 가까운 사람들이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성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보겠다는 개발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인니까 이 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한계를 먼저 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요구되겠지요. 또, 장애인들이 의존적 존재가 아닌 경제적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생산품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지역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율을 나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네, 현재 남동구 장수동에서 1개 층에 임대하여 일하고 있는데, 10월 초면 연수구 동춘동 단독 건물로 이전을 합니다. 당연히 건물이 커진 만큼 매출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도 많아질 것이고, 직원 수도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카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카페에 장애인들이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전시하고, 장애인들이 만든 과자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전시장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비장애인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와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산품을 구경하면서 카페를 통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들이 점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될 것, 이러한 것이 다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대담 : 이 용 갑(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 기록·사진 : 장 수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아뜨리에 74호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백은석 원장을 만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의 관계는 어
떠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 중구와 구정현안 간담회 개최

- 중구, 도시정비사업 제반문제 해결 및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현안으로 제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13일,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곽하영 부구청장 및 관련 국실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구 관련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중구청 공무원과 우리 연구원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다.

중구 관련 연구성과 발표는 기윤환 연구위원의 "소무의도 문화예술의 섬 육성방안"에 이어, 김용하 도시기반연구부장의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인천항 제1부두 주변 정비구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곽하영 중구 부구청장은 ①도시정비사업 제반문제 해결 ②동인천 활성화 ③국제공항 환승객 유치 ④신포시장 패션산업 ⑤영종미개발지역 주택문제 해결 ⑥구민센터 접근성 제고 및 지속적인 활용·운영 등을 구정현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과제에 대해서 중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이 정비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 연구 아이디어 시민공모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시정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 연구 아이디어 시민공모를 추진한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연구과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3건까지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다운로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면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게 된다.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은 "시민들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시장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시민 여러분께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인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연구아이디어를 제안 받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분야
인천광역시 시정 전분야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산업, 경제, 경영, 관광, 물류, 여성, 문화, 예술, 사회복지 등)
- 공모기간 및 방법
2012. 9. 20 ~ 10. 10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 직접 입력 또는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issue@idi.re.kr)로 제출
- 참가자격
인천광역시 전 시민(제안과제 3개까지 복수지원 가능)
- 심사기준
연구과제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용성, 적시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결과발표
10월 말,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 게시
- 최우수 1명 상품권 100만원
- 우수 2명 상품권 각50만원
- 장려 5명 상품권 각20만원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생동감 있고, 다양성을 배려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9월에 만난 idr people

생동감 있고, 다양성을 배려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윤/하/연 박사

“아프리에 올해, Zoom 人 코너에 ‘IDr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6년 5월에 입사해 올해로 근속년수 16년차에 빛나는 개원 멤버, 윤하연 박사. 우리 연구원 여성박사들 중 최고참인 윤 박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당시부터 환경, 도시계획, 복지, 행·재정의 네 분야, 총 9명으로 출발했고, 조경두, 이종현 박사가 입사 동기다. 그때를 떠올리면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 그 당시 동료 중에 연구원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는 등 초창기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구원 외관이나 규모도 커지고, 직원 수도 늘고, 연구 분야도 세분화 되었으며, 무엇보다 연구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연구원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족 같은 분위기 였다면 지금은 연구원간의 경쟁개념이 강조되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 연구원 근무조건이 강화되고 연봉제 도입, 상호평가를 비롯한 평가시스템이 강화된 게 그 이유가 아닌가 한다. 연구원과 함께 청춘을 바친 윤 박사는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해 연구원에 다니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회사와 집안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이야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흔하지만 당시에는 출산 휴가로 2달을 쉬고, 다시 출근을 해야 했다. 둘째 아이는 나름 계획을 갖고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시기에 출산을 계획하였으나 수탁과제 기간이 연장되면서 출산휴가 중에도 노트북을 켜놓고, 원고를 수정해야 했던 일이 생긴다. 다시 그런 기회나 여건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썼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단, 육아휴직을 쓸 경우, 지금 연구원의 체계가 1년간의 시간은 용인해주고 있지만 그 분야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의사결정자나 대체이력은 마련하는 브로에 대해 고민해 볼 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다. 그래야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직원도, 남아 있는 직원도 마음 쓰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윤 박사의 전공은 폐기물이다. 폐기물이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쓰레기 박사'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당연히 환경 쪽에서도 폐기물 관련 일을 많이 해 왔는데,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유사 분야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아져서 그 영역이나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과제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과제내용보다는 이해당사자가 명확한 과제의 경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산정하는 과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쪽 입장에서는 반발도 있고, 자칫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니까 조심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였다.



2003년 환경실 워크숍



2006년 대안 연구여행

혹시라도 다른 영역의 연구를 하게 된다면, 환경적인 마인드가 살아있는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다. 도시계획적인 스킬은 부족하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 연구원과 상관없이 해보고 싶은 일은 하루 8시간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직장 밖을 나서면 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육체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스트레스가 된 것 같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수도권내 연구원들과 파견근무 형식의 인적교류를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교류하듯 수도권내 연구원들과 정보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배울 건 배우고, 조금의 여유도 가진다면, 서로에게 발전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원에서는 스스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에 보람을 느낀다. 열심히 쓴 보고서가 쓰이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에는 힘이 빠지는 반면, 시정 관련 과제를 해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이다.

일례로, 청소행정 관련 평가방법과 틀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었다. 구군의 반대로 심했지만,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고, 체계가 정립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제한한 정책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라도 관련 분야에서 과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도시계획, 환경, 교통, 경제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여성연구자의 연구원에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대개가 아직은 주니어급으로 연구원에서의 의사결정이나 발언권이 좀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적으로 30%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연구원에서의 여성연구원의 역할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 여성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2012년 알펜루트 연구여행

때가 있다. 연구원들 간의 교류도 적어지고 윤 박사 역시 그저 연구자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소통의 전부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연구원이니만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박사는 또, 조직내에서 시스템이 정립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얘기해봐야... 나서봐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일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부분에서 침묵한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이미 분위기가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이 안타깝다. 더 침체되기 전에 연구자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연구원의 고참다운 열의와 애정을 엿볼 수 있고, 윤 박사의 호탕한 성격이 곳곳에 묻어났던 인터뷰와는 달리, 딱히 취미도 없고, 그저 수다나 적당량(?)의 음주를 좋아하며, 화가 나도 오래 가지 않고, 툭 털고 잊어버리는 쿨한 성격의 윤하연 박사가 그녀의 바람대로 활기를 되찾은 연구원에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 interviewer :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글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96년 5월에 입사해 올해로 근속년수 16년차에 빛나는 개원 멤버, 윤하연 박사. 우리 연구원 여성박사들 중 최고참인 윤 박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당시부터 환경, 도시계획, 복지, 행·재정의 네 분야, 총 9명으로 출발했고, 조경두, 이종현 박사가 입사 동기다.

강화대로1_갯곶진과 손돌목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글 / 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 / 석종수, 손동필(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강화도는 이제 섬이 아니다. 강화대교에 이어 초지대교가 놓임으로서 김포와 강화도 사이 해협을 흐르는 염하를 나룻배로 노저어 건너던 시절은 이제 전설처럼 아득하다. 우리가 가는 강화대로는 강화대교에서 시작하여 강화읍을 지나 암사면 인화리 해변 부근에서 끝나는 48번 국도의 강화군 통과부분을 말한다. 인화리에서 교동섬을 연결하는 교동대교가 2013년초에 완공되면 교통도 더 이상 섬이 아니다. 서울에서 교동까지는 자동차로 두 시간이면 넉넉할 것이니 48번국도와 강화대로는 지금보다 훨씬 분주한 길이 될 것이다.



구 강화대교

김포 문수산성 아래에 있는 전망대에 내려 강화대교 아래로 흘러가는 염하의 장관을 구경할까 했는데 손 박사가 운전하는 차는 어느덧 강화대교 위를 달리고 있는게 아닌가. 우리 일행이 건너는 다리의 남쪽으로 옛 강화대교(舊大橋)가 내려다 보인다. 1970년에 개통된 교량으로 김포군 월곶리와 강화읍 갯곶리를 연결하는 최초의 강화 연륙교였다. 옛 강화대교 다리는 개통 후 27년 동안 육지와 섬을 잇는 역할을 하느라 낡아 1997년에 개통된 새 강화대교와 임무교대를 한 뒤 제법 고즈넉한 자색로 해협의 일부가 되고 있다. 갯벌과 시멘트 색이 조응한 타인지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도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자연과 하나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강화대교 서단에 위치한 마을이 갯곶리(갯곶里)인데 이 마을의 이름은 강화의 가장 오래된 지명인 갑비고치(甲比古支)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 갑비고치는 고구려 때는 혈구(血口)로 신라 경덕왕 때는 해구(海口)로 불리웠으며, 몽골침입기에 고려의 패난 수도가 되면서 강도(江口) 혹은 심도(心口)로 불렸다. 지금의 지명인 강화(江華)로 처음 불린 것은 고려 우왕3년(1377년)이다. 무려 636년 전의 일이다. 강화는 한자어로 표기되지만 갑곶, 혈구와 함께 우리 고유어에 뿌리를 둔 지명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갯곶'이란 지명은 무슨 의미일까? '甲比(甲比)'는 '가+비'를 음차한 것으로 '가+비'의 어근으로 '나란하다', '겹치다' 혹은 '갈라지다'는 의미의 우리말이다. 겹쳐 입는 옷을 '갯'이라 하고, 함경도의 갑산(甲山)이 강을 중심으로 두 갈래의 산줄기가 겹쳐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古次(古次)'는 '고+자'를 음차한 글자로 '송곳', '교쟁이'와 같은 낱말의 뿌리이다. 주로 뿔이나 꼬챙이처럼 뾰족한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중국 사람들은 꼬치구이 식당임을 알리는 표시로 '串'자를 쓴 갯발을 가게 앞에 내건다. 또 튀어나온 땅을 의미하는 뜻으로 확장되어 바다나 강을 향해 돌출한 해안지형을 가리킨다. 황해도 '장산곶', 서구의 옛 지명 '서곶' 등이 그 예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 강화도가 온통 '곶'으로 둘러싸인 섬이니까. '월곶', '장곶', '북일곶'이 그것이다. 갯곶이란 '곶'이 겹쳐 있는 땅 혹은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곶'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혈구'나 '해구' 같은 지명은 바로 그런 의미와 관련되며 강화(江華)의 '화'는 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땅인 '곶'의 음차인 것이다.

땅이름의 근원을 캐기는 일은 번거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시콜콜해보이기도 하지만 인문지리의 출발점이다. 땅이름에는 해당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대교가 놓여있는 강화해협은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에 있는 남북 방향의 좁은 해협(海峽)이다. 마치 강과 같다 하여 염하(鹽河)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폭이 좁은 곳은 200~300m, 넓은 곳은 1km 정도이고, 길이는 약 20km이다. 밀물 때의 최대 유속은 약 3.5m/sec로 물살이 거세고 수심이 얕아서 썰물 때에는 곳에 따라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염하의 북쪽으로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의 강물이 흘러들어 오는데, 염하 북단 월곶과 남단 황산도 일대의 바다는 해수면 높이가 달라 물살이 빨라지게 된다. 염하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조선시대에 삼남지방에서 서해를

강화해협(염하)



북상해 온 세곡선(世谷線)이 염하를 통해 한강으로 진입하여 한양으로 들어갔다. 염하는 교통의 요지였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외세를 막는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개항기 때에는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치른 격전지였다. 염하를 따라 군대 주둔지인 진(鎭)과 보(堡), 초소인 돈대 등 수많은 방어유적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초지진(草芝鎭, 사적 제25호), 덕진진(德津鎭, 사적 제26호), 덕포진(德浦鎭, 사적 제22호), 광성보(廣城堡, 사적 제27호), 갑곶돈대(甲峯墩, 사적 제38호) 등이 있다.

강화읍을 지나며 성공회 강화성당을 들렀다. 강화 남산 언덕의 성공회 강화성당은 종교사적 관점이나 문화사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건축이다. 영국인 선교사의 노력으로 1900년 세워진 건물은 서양 문화와 동양의 건축이 **함체**한 유적이라 할만하다. 동도서기(東道西器)가 아니라 서도동기(西道東器)의 사례다. 백두산의 목재를 가져와 지어졌다는 성당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앙사상인 불교 사찰의 건축양식을 차용하여 서양종교에 대한 이질감을 줄인다. 사찰의 일주문과 천왕문을 연상시키는 외삼문과 내삼문을 지나면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은 본당 건물이 나타난다. 지붕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성당 건물로 보이지 않는 건물 외관이지만 내부 공간은 높은 천장과 모서리의 날개장식이 특징인 바실리카 양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화성당이 위치한 언덕 남쪽에 용흥궁(龍興宮)이 있다. 조선 25대왕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사가이다. 철종은 24대왕 현종이 급사하면서 후사가 없어 서민처럼 살다가 19살의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른 터라 권력기반도 왕자의 소양도 없었다. 권력과 정사는 안동김씨의 수중에 있었으니 사실상 안동김씨의 데릴사위였다. 철종이 할 일이라고는 궁중에서 주색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 역시 재위 14년만인 33세의 나이에 후사 없이 세상을 뜨고만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용흥궁은 **용이 일어난 궁**이란 뜻이지만, 이름만 궁이지 안내문이 없다면 왕의 생가터라고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흥궁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안채와 정면 6칸 측면 2칸의 사랑채 등으로 이뤄져 있다. 1853년 철종 4년 강호유수 정기세가 주변의 집들을 사들여 기와집으로 확대한 것이다. 본래의 집지는 훨씬 웅장한 초가집이었던 것이다.

강화도령 철종의 잠저 유적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의 식당 간판에 **전국갈비**라는 메뉴를 표나게 써두었다. 식당 앞에 고추를 넣고 있는 주민에게 물으니 새우젓국에 돼지고기를 자작하게 졸이는 요리란다. 먹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요리여서 호기심과 구미가 당겼지만, 꽃게탕 집에 점심을 약속해두었으니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새우는 강화해안애 많이 잡히는 해산물이다. 그리고 보니 돼지 족발이나 수육, 머리고기는 새우젓에 찍어야 제 맛 아닌가. 새우와 돼지고기가 궁합이라고 생각하니 방금 발견한 강화 특미(?) 식당이 새삼 뒤돌아 보인다.



고려궁지와 외규장각, 강화유수부의 답사는 다음으로 미룬 채 강화읍을 마막 벗어나려는데 '연무당 옛터'의 기념비가 발길을 잡는다.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라고 알려진 병자수호조약이 조인된 역사적 장소이다. 이곳에서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해 조선은 부산항, 인천항, 원산항을 개항하게 되었단 것이다.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유적이 아닐 수 없다.



연무당터에 세워진 기념비는 1977년에 세워진 것이다. 시조시인 이은상의 글을 서예가 김충현이 썼다는 이 기념 비문의 문체를 들여다보면 유신정권기의 문화 환경을 짐작하기 족하다. 비문을 건립한 동기가 '1976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자주적 역량만이 사는 길임을 보여준 곳'이므로 이곳을 길이 보존하도록 하라는 분부를 내려 문화공보부와 경기도가 그 깊은 뜻을 받들어서 폐허를 쓸고 이같이 깨끗하게 꾸며 놓았거니와 우리는 여기에 와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다'고 밝혀 두었다. 그런데 이 장소의 역사적 교훈보다 세우라고 '분부를 내린' 사람의 공적이 더 도드라지고 이은상의 장식적인 문장과 감상적 논평, 김충현의 예서체가 더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이 청소년들의 이른바 '호국문화' 체험 코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민망스럽다.

병자수호조규의 문서나 1875년에 있었던 윤양호 사건과 같은 조약체결 배경 등을 찬찬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기념관이 있으면 역사의 현장이 더 뜻깊어질 것이다.

강화대로 주변에는 의외로 살펴볼 곳이 많다. 갑곶진이나 고려궁지, 강화산성, 부근리 고인돌 공원 등이 그것이다.

덕포 담장을 기어오르기를 끝내지 못했다. 이즈음에 근방주민들은 강변대로 1차 담장을 바깥으로 끌어오곤 몸을 초지대교 쪽으로 잡았다. 다리를 건너며 문득 손돌목 전설이 떠올랐다. 강화의 광성보와 김포 덕포 마을 사이의 해협은 다른 곳보다 더 좁아 폭은 200미터에 불과하다. 해협의 북쪽에서 보면 이곳은 목구멍처럼 좁아 보이기 때문에 손돌목이라 부른다. 한자어 지명도 손돌항^해이다. 이 손돌목에는 몽골침입기에 고려왕을 나룻배로 이 해협을 건널 때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이 해협 쪽으로 배를 몰고가자 왕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사공을 참수하였는데, 사공이 죽으면서 남긴 말대로 하니 형로를 벗어나 강화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왕은 뒤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손돌을 후히 장사지냈으며,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도 세워주었다고 전한다. 이 뱃길목은 손돌의 목을 뱀 곳이라 하여 **손돌목**이라 부르며, 공^공의 기일인 음력 10월 20일 쯤이면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때의 거센 바람을 **손돌바람**, 이 무렵의 추위를 **손돌추위**라 부른다. 손돌의 묘로 알려진 무덤은 광성보 좁은 바다 건너에 있는 김포 덕포진 북쪽 해안 언덕 위에 있다. 손돌을 위로하는 제사는 조선말까지 이어 오다가 일제 강점 후 중단되었으나 1970년 이후 다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손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광성보 부근의 지형을 가리키는 고유어이다. '○돌목'이란 좁고 물살이 빠른 해협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예가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의 해협 **울돌목**^해이다. 이순신장군이 이곳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임진왜란 때 왜적을 대파한 **명랑해전**의 현장이다. 그렇다면 **손돌목**에서 **손**은 성씨가 아니라 좁거나 뾰족하다는 뜻을 지닌 고유어 '술다'의 관형형인 것이다. 소나무는 그 잎이 좁고 뾰족해서 '술+나무'다. 칩술의 '술'도 마찬가지다. 결국 '손돌'이나 '손돌목'은 '목구멍처럼 매우 좁은 해협'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이름과 흡사하기 때문에 뱃사공 설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손돌목의 거센 풍랑과 물살 때문에 이곳에서 배가 뒤집혀 죽어간 이야기는 술하게 전해올 것이다.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과 원혼에 대한 강화 주민들의 두려움이 손돌이라는 풍신^해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손돌 이야기는 바람의 신에 대한 숭배를 통해 험한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화 지역 민중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초지대교를 건너며 손돌의 전설을 이야기 하던 중, 오늘 우리 일행을 태우고 두 번이나 강화해협을 건너게 해준 분을 생각하니 바로 손^해박사 아닌가?



PHOTO ESSAY

길에게 길을 묻고 싶거들랑
호젓한 산길을 골라 혼자 걸을 일이다.
세상살이 얕아 안 보이고 어찌할 줄 모르거들랑
보름날 야간 산행을 할 일이다.
달과 구름과 봉우리와 숲의 조화가 딱인 그곳에서 결단할 일이다. 삶은 그런 거다.



구수하고 달큰한 단호박 꽃게탕 충남서산집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손동필(도시기반연구부)

강화도를 즐겨 찾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고, 먹어봤을 정도의 명성을 자랑하는 꽃게탕 전문점이 있다. 바로 '충남 서산집'이다.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에 본관이, 내가면 외포리에 별관이 있고, 김포에도 분점이 생긴 '충남 서산집'은 흔히 말하는 장사 잘 되는 집이다. 그래서 주말에 가면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메뉴 또한 전문식당답게 단순하다. 단연 인기 있는 꽃게탕과 하얗게 백숙으로 나오는 꽃게찜, 간장게장, 뽕이회무침 정도다.

꽃게탕과 뽕이회무침을 주문했다. 평일, 살짝 점심시간을 빗겨간 시간에 방문해서 여유로운 점심을 즐길 수 있었다. 밀반찬은 강화도답게 강화 특산물의 하나인 순무김치가 나온다. 그밖에 여러굴젓, 무판지, 삭힌 고추 무침, 무말랭이, 콩나물무침, 콩자반이 차려진다. 적당히 잘 익은 순무김치의 달짝지근하면서도 씹새름한 특유의 맛과 짭조름한 밥도둑 여러굴젓, 아삭한 고추 무침 등도 맛있다.



먼저 뽕이회무침이 상에 올랐다. 뽕이회와 오이 먹음직스럽게 무쳐져 있고, 그 위에 통깨를 대신해서 고 뿌려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부드러운 뽕이회가 살살 맛은 새콤달콤하면서도 해바라기씨 때문에 씹는 맛이 더 고소하다. 뽕이 자체만으로는 살짝은 문도가네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상큼하게 회무침으로 먹으니 애피타이저 같이 입맛을 돋워준다.

그리고 메인요리인 꽃게탕은 중(50,000원), 대(6,000원), 특대(70,000원)로 판매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꽃게탕이 냄비가 넘칠 듯 푸짐한 양을 자랑하며 상에 올려졌다. '충남 서산집' 꽃게탕의 핵심은 단 호박. 가게 입구에도 둥글고 실한 단 호박들이 가득 쌓여있다. 꽃게탕에는 단호박, 팽이버섯, 대파, 감자, 양파 등의 재료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을수록 냄새가 깊고 진해진다. 꽃게에는 알이 들어차 있고, 살도 많고 달다. 국물 맛은 단 호박 때문에 칼칼하기 보다는 달큰하다. 기본적으로 음식의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선호도가 크지 않겠지만, 단 호박이 오히려 거의 비린내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남녀노소가 수월하게 먹기에는 더 적당한 맛이다. 또한 고추장 보다는 된장이 더 많이 들어가 구수한 맛을 더하는 것 같다. 단지 꽃게 먹기에 집중하다 보면 일행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탕에 있는 계투경도 숟가락으로 안쪽까지 긁어 먹으면 알 같은 먹을 것들이 꽤 붙어있다. 계투경에 국물을 자작하게 넣고, 뜨거운 밥을 한술 떠서 말아먹고 나면, 기분 좋은 포만감이 밀려든다.

특히 가을 숫게철이 곧 다가온다. 꽃게는 자고로 3~5월, 특히 알이 꽉 찬 6월에 최고의 암꽃게를 먹을 수 있고, 7~8 월에는 꽃게들의 산란기라 조업이 중지되며 산란기를 지난 암게는 살이 빠져 맛이 없다고 한다. 지금이 딱 숫게철이다. 9~10월 중에 본격적인 숫게들이 잡히는데, 이때 숫게가 암게보다 더 달고, 알 대신 담백한 살들로 꽉 차 있어서 백숙으로 먹기에 그만이라고 하니, 제철 맛은 꽃게의 탱탱한 살과 노란 계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숫게의 참맛을 느껴 봐도 좋겠다.

그 후에 높달하게 걸린 청명한 하늘을 벗 삼아, 느리게 느리게 강화 나들길을 거닐면 한가롭고 여유로운 가을 나들이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 주소 :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385 *전화번호 : 032-933-1667

강화도는 이제는 섬이 아니다. 강화대교에 이어 초지대교가 놓임으로서 김포와 강화도 사이 해협을 흐르는 염하를 나룻배로 노저어 건너던 시절은 이제 전설처럼 아득하다. 우리가 갈 강화대로는 강화대교에서 시작하여 강화읍을 지나 암사면 인화리 해변 부근에서 끝나는 48번 국도의 강화군 통과부분을 말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적·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전, 스페셜 올림픽 첫 개최지, 미국 시카고

지적·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전, 스페셜 올림픽 첫 개최지, 미국 시카고

하 설 피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행정원)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의 출발점, 시카고(Chicago)

미국 일리노이 주 북동부에 위치한 미국 제2의 도시인 시카고(Chicago)는 시카고는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행사인 스페셜 올림(Special Olympic)이 처음 개최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스페셜올림픽은 동·하계 대회로 나뉘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3대 올림픽(올림픽, 패럴림픽, 스페셜올림픽)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동생이자 사회사업가인 Eunice Kennedy Shriver가 1962년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일 캠프를 열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1968년 '제1회 시카고 스페셜올림픽'으로 발전하였다.



▲ 제1회 스페셜올림픽이 열린 시카고 솔저필드와 Eunice Kennedy Shriver

지적·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시



▲ NCPAD가 진행하는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또한, 시카고가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육관련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미국 국립장애인체육활동센터(NCPAD: National Center on Physical Activity and Disability)'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와 신체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카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관련 체육기관으로는 시카고 DuPage 지역 서부의 발달장애인들에게 레저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DSRA(Western DuPage Special Recreation Association)'가 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스페셜올림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거주하는 Burr Ridge에 소재한 'Hanson Center'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적 체육시설이다. 이들 시설들은 지적·발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그

시카고는 스포츠를 통해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스페셜 올림픽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시카고는 지적·발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시카고는 체육학 전공과목에서 스페셜올림픽을 커리큘럼에 적용시켰으며, 동시에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밖에 분과, 예술, 레크레이션 등의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존감향상, 신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인 'DDD(Divi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를 설치하였으며,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적·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교육에 대한 부재뿐만 아니라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부족과 무관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스페셜올림픽의 존재조차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이번 스페셜올림픽이 '그들만의 축제'로 끝나게 될까 많은 우려가 있다.



▲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프레더회 개막식 모습

스페셜올림픽의 첫 개최지인 시카고를 바라보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지적·발달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평창,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본다.

미국 일리노이 주 북동부에 위치한 미국 제2의 도시인 시카고(Chicago)는 시카고는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행사인 스페셜 올림(Special Olympic)이 처음 개최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효율적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이용갑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 중 “장애인가족 양육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애아동 1명당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의 부모와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이다. 인천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2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아가 있는 160가정에 위와 두 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거주 장애인들 중 장애아 양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19세까지의 장애인이 5,243명임을 고려할 경우, 2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범위는 너무나 작은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가족 양육 지원”의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 1명당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애아동에게 월 42~62시간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비교할 경우 대단히 적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집안의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부재하며, 장애아에 대한 상시적 돌봄 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가족갈등의 문제가 내재하고,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2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각기 독자적으로 장애아의 부모와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같은 도시형태의 광역자치체에 거주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 중 약 180가정에 동등하거나 연계되지 못하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실시는 사업의 효율성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사업의 효과성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장애인 가족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에 적용할 경우 연간 320시간으로 한정된 서비스 제공량을 확대하고, 또한 시간당 6,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돌보도우미에 대한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대상 가정이 인천 전체에 160가정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인천시 장애아동가족의 양육 지원 대상 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0개의 기초자치체마다 1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빠른 신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종합복지관(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장애인가족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연구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복수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의 협의하여 제공시키는 다를 수 있을지라도, 내용은 가능한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현재 실시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인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이나, 경상남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와 같이 인천광역시만의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타 시·도의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군·구와 재원조달과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가족지원 사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의 one-stop 제공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지만, 제공기관의 다양성 때문에 one-stop 체계 확립이 어려운 경우 기관간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연계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을 하나의 Data Base로 관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 중 “장애인가족 양육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애아동 1명당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의 부모와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표로 보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지표로 보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 용 갑 단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11년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11년의 장애인 규모는 약 268.3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93.8%인 251.7만명이다. 2011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전국 등록장애인의 5.2%인 131,789명이다. 이는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 2,851,490명의 약 4.6%에 해당된다. 인천 장애인의 규모는 거주인구의 증가와 국가차원에서의 장애 유형의 확대에 따라 2001년 61,779명에서 2011년 131,789명으로 2.1배가 증가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인천 거주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2.4%에서 4.6%로 증가하였다.

〈표 1〉 인천광역시 장애인 규모의 변화

(단위: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61,779	70,442	77,922	84,956	93,889	102,790	110,929	117,519	126,738	131,689	131,789
비율	2.4	2.7	3.0	3.3	3.6	3.9	4.1	4.3	4.6	4.7	4.6

자료: 개간인원통계, 각년도 4/4분기

2011년 말 현재 인천의 등록 장애인 131,789명을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남성 장애인은 60.9%인 80,246명이며, 여성 장애인은 39.1%인 51,543명이다.

2011년 말 현재 인천 전체의 등록장애인 131,789명을 10개 군·구를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의 규모를 구분하면, 부평구가 27,272명, 남동구가 22,350명, 남구가 21,253명으로 많고, 동구 4,969명, 강화군 4,922명, 중구 4,877명, 옹진군 1,341명으로 적다. 반면에 거주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강화군이 7.3%, 옹진군이 6.8%, 동구 6.2%, 중구 5.0%로 높은 수준이다.

〈표 2〉 기초지자체별 인천광역시 장애인 규모

(단위:명,%)

	전체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전체	131,789	4,877	4,969	21,253	11,479	22,350	27,272	14,213	19,213	4,922	1,341
비율	4.6	5.0	6.2	5.0	3.9	4.4	4.8	4.1	4.3	7.3	6.8

*2011.12.31. 현재

자료: 개간인원통계, 2011년 4/4분기

〈표 3〉 인천광역시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명,%)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규모	131,789	72,450	12,575	13,147	14,400	7,885	895	4,124	3,510	385	773	405	145	671	454
비율	100	55.0	10.4	9.9	11	6	0.6	3.8	2.3	0.5	0.6	0.3	0.1	0.5	0.4

*2011.12.31. 현재

자료: 개간인원통계, 2011년 4/4분기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지적 장애라는 5개 장애유형은 2000년 1월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및 심장 장애가 새로 인정되어 10개로 확대되고, 2003년 7월에는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및 간질 장애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5개 장애유형으로 정립되었다. 2011년 말 현재 인천 전체의 등록장애인 131,789명을 장애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지체장애인은 전체의 53.0%인 72,45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은 11.0%인 27,610명, 뇌병변장애인이 10.4%인 26,174명, 시각장애인이 9.9%인 24,259명, 지적장애인이 6.0%인 16,249명 등의 순서이다.

〈표 4〉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연령

(단위:명)

	전체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규모	131,789	1,441	3,802	5,136	10,585	21,660	32,254	27,213	21,958	7,760

비율	100.0	1.1	2.9	3.9	8.0	16.4	24.5	20.6	16.7	5.9
----	-------	-----	-----	-----	-----	------	------	------	------	-----

•2011.12.31. 현재
자료: 계간인천통계, 2011년 4/4분기

2011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 131,789명을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50대가 24.5%, 60대가 20.6%, 70대가 16.7%, 40대가 16.4% 등의 순서이다.

〈표 5〉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등급

(단위:명)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규모	131,789	10,863	17,249	22,476	20,692	27,950	32,559
비율	100	8.2	13.1	17.1	15.7	21.2	24.7

•2011.12.31. 현재
자료: 계간인천통계, 2011년 4/4분기

2011년 말 현재 131,789명의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구분하면 1급이 8.2%, 2급 13.1%, 3급 17.1%, 4급 15.7%, 5급 21.2%, 6급 24.7%이다.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2011년 말 현재 131개소이다. 이중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은 법인시설 19개소와 개인시설 4개소를 합친 23개소이며, 이용시설 중 대표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개소이다.

〈표 6〉 인천광역시의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단위:개소)

구분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전체	지역사의 재활시설								작업재활시설	
				소계	복지관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	의료재활	기타		소계	근로보호
시설	131	23	108	81	9	25	4	37	2	4		27	4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활시설의 규모는 2006년 12개소에서 2011년 2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같은 기간동안 646명에서 980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7〉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생활시설

(단위:개소,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설	12	12	14	16	18	23
인원	646	669	749	813	896	980

•2011.12.31. 현재
자료: 계간인천통계, 2011년 4/4분기

2012년 7월 31일 현재 23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958명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약 68%, 장애등급은 1등급이 약 72%, 성별은 남자가 약 63%, 연령은 다양한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11년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11년의 장애인 규모는 약 268.3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등록장애인은 93.8%인 251.7만명이다. 2011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전국 등록장애인의 5.2%인 131,789명이다.